

기다려라

*이 교재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기 위해 6-7페이지에 나오는 '인도자들을 위한 지침'을 꼭 숙지해주세요.

인도자를 위한 이 과의 목적 :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승천하시기 전에 강조하신 사상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항상 성령님을 기다리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훈련을 하도록 도전한다.



말씀 깨닫기 위한 준비

오늘의 말씀 : 사도행전 1:1~8

찬송 : 183장(통 172장, 빈 들에 마른 풀같이)

기도 : 정해진 담당순서에 따라

지난 주 말씀 적용한 것 나누기

마음 열기 : 오래 동안 인내하며 기다려서 큰 유익을 경험한 적이 있다면 나누어 봅시다.

말씀 듣기 1 : 본문을 다 함께 천천히 읽어 봅시다.

배경설명 및 도움말 :

인도자가 읽거나 혹은 미리 숙지해 온 것을 설명해 줌으로써 참가자들이 두 번째 말씀을 듣는 동안에 내용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얻도록 해줍니다.

Kingdom
Life



배경설명 :

사도행전은 이방인 의사 누가에 의해 기록된 책으로서 영어 성경은 Acts(행동들)로 표기한다. “행동들”이라는 의미대로 사도행전은 먼저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하신 “행동들”을 소개함으로 시작된다(1-3절). 십자가와 부활을 포함하는 예수님의 공생애가 없었다면 이 땅에서 교회는 시작될 수 없었다. 그리고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나가서 바로 교회를 세우거나 선교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먼저 성령님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다. 이것은 교회의 본질이 성령께서 시작하시고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성령 공동체라는 것을 시사해 준다. 사도행전은 하나님 나라 복음이 성령의 권능을 입은 사도들과 성도들에 의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전파되는 과정을 보여준다.

도움말 :

- 먼저 쓴 글(1절): 누가에 쓰여진 누가복음을 의미한다.
- 하나님 나라(3절, 헬: 바실레이아 투 테우): 하나님 나라는 첫째, 믿는 자들이 예수님의 재림 후에 들어가 영원히 살게 될 미래적 실제이다(계 21:4 참조). 둘째, 믿는 자들이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있는 현재적 실제이다(마 12:28, 골 1:13 참조). 세째, 공간적 개념이 아니라 통치적 개념으로서 하나님의 통치를 의미한다.
- 권능(9절, 헬: 뒤나미스):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이나 힘(눅 24:49 참조)을 의미한다. 예수님은 공생애 기간 동안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을 시작하셨고(눅 4:14 참조), 병을 고치셨고(눅 8:46 참조), 귀신을 제어하셨다(마 12:28 참조). ‘뒤나미스’는 또한 구원을 가져다 주는 능력(롬 1:16)으로 이해되며,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고 확장하는 일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 증인(9절, 헬: 마르튀스): 자기가 직접 보고 들은 것을 확실히 증언할 수 있는 사람을 의미한다.

말씀 듣기 2 :

한 명이 다시 본문을 천천히 읽고, 나머지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강조한 것이 무엇인지에 귀를 기울이며 경청합시다.



말씀 깨닫기

1. 예수님의 공생애 사역을 간략하게 요약하면서 본서를 시작한 저자 누가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승천하시기 전 사십 일 동안 무엇을 말씀하셨다고 설명합니까?(1-3절)

먼저, 누가는 자신이 전에 기록한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의 행적과 가르치심, 그리고 제자들에게 명하신 것과 고난 받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 승천하신 일에 대해 기록해 놓았다고 말을 꺼낸다. 그런 후에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승천하시기 전까지 사십 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고 설명한다.

▶ 사도행전은 성령님과 교회의 ‘행동들’(Acts)을 기록한 책입니다. 그런데 누가는 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먼저 소개하면서 사도행전을 시작했을까요?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일을 복음이라고 한다. 사도행전은 성령께서 교회를 통해 예수님의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가는 이야기이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복음)이 없이는 사도행전과 교회가 존재할 수 없다. 그런 의미에서, 이 책의 저자 누가는 성령님과 교회의 행동들을 본격적으로 소개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먼저 소개한 것이다.

▶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말씀하신 것들이 많았을텐데, 누가는 간단히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고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의 공생애 사역의 핵심이었다. 예수님의 공생애를 요약해 주며, 예수님의 삼중 사역으로 알려져 있는 가르침, 선포, 치유(마 4:23, 9:35 참조)의 핵심이 하나님 나라였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승천하시기 전까지도 하나님 나라에 대해 말씀하셨다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이다. 나아가서, 이러한 사실은 앞으로 성령께서 제자들을 통해 행하실 일들의 핵심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 될 것을 암시해 준다.

▶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이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이었다는 사실은 현재 우리 교회들에 무엇을 시사해 줍니까?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사역을 행하셨다면, 우리 교회도 하나님 나라 중심이어야 한다.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어 확장하는

것이어서 한다. 교회는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하는 통로가 되어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실재를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

2.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명하신 것은 무엇입니까?(4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즉 성령님을 기다리라고 명하셨다.

▶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세상에 나가 제자를 삼고 하나님 나라를 세상에 확장해 나가기 전에 왜 먼저 성령님을 기다리라고 하셨을까요?(요 14:26, 15:26, 16:7,13 참조)

예수님은 자신이 승천하신 후 제자들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고 확장하는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함을 알고 계셨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공생애 기간 동안에 이미 제자들에게 그들과 영원히 함께 계실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다(요 14:16). 그리고 성령께서 그들에게 오셔서 그들을 어떻게 도와주실 지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셨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성령님과 동행하지 않고서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세상에 나가 무엇을 하기 전에 먼저 성령님을 기다리라고 하셨던 것이다.

▶ 성령님을 간절히 구하고 기다렸던 적이 있다면 함께 나누어 봅시다.

성령님은 초대교회 당시의 제자들 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절대적으로 필요한 분이다. 성령님과 동행하지 않고서는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 수 없다. 일상에서 얼마나 성령님을 의지하며 살고 있는지 나누어 보는 것도 좋을 것이다.

3. 예수님은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임하시면 그들이 무엇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으며, 그 의미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8절)

제자들은 성령께서 임하시면 권능을 받게 될 것이다.

▶ 성령께서 임하시면 제자들이 권능을 받을 것이라는 의미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도움말 참조).

권능을 의미하는 헬라어 ‘뒤나미스’는 성령께서 주시는 초자연적인 능력이나 힘을 의미한다. 삼위일체의 제 2격으로서 온전한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온전한 인간으로 사셨다. 그래서 우리와 같이 배고픔과 슬픔과 고통도 겪으셨다. 사복음서, 특별히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령님의 능력을 입어 하나님 나라 사역을 하셨다는 기록이 많이 등장한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셨기에 스스로 얼마든지 능력을 행하실 수 있었다. 하지만 예수님은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심으로써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할지 본을 보여주셨다. 성령께서 임하시면 제자들이 권능을 받을 것이라는 말은 성령께서 임하시면 예수님께 임했던 성령님의 능력을 제자들도 받을 것이라는 의미이다. 제자들 스스로는 베드로와 같이 아무리 강한 의지를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하나, 성령님의 능력을 입는 것이었다.

▶ **‘참된 신앙은 성령님을 앞서 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따라가는 것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러한 표현은 당신의 신앙 생활에 무엇을 시사해 줍니까?**

때로 내가 주어가 되고, 성령님은 나를 돕는 동사가 될 때가 있다. 하지만 우리가 항상 명심해야 할 것은 그리스도인은 주어가 되시는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는 동사라는 것이다. 이 사실을 기억한다면, 우리의 기도가 달라질 것이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구하고, 성령께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기도하는 대신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구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할 것이다.

4.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주신 궁극적 사명은 무엇입니까?(8절)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되라는 것이었다.

▶ **예수님은 제자들이 머물고 있던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하여 가장 먼 곳인 땅 끝까지 증인이 될 것을 말씀하셨는데, 여기에서 땅 끝은 어디를 의미한다고 생각합니까?**

아마도 제자들은 땅 끝을 예루살렘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곳으로 이해했을 수 있다. 바울은 땅 끝을 서바나(스페인)로 생각했던 것 같다(롬 15:23 참조). 하지만, 그 당시 지구가 둥글다는 것을 모르고 있던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지리학적인 면에서의 땅 끝을 말씀하셨을까? 예수님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모든 족속이나 지역이나 나라를 의미하셨을 것이다.

▶ **당신이 가서 예수님을 증거해야 할 당신의 예루살렘과 땅 끝은 어디일까요?**

우리의 예루살렘은 우리가 거주하는 곳, 혹은 우리 교회 공동체가 위치해 있는 곳으로 볼 수 있다. 우리는 선교라고 하면 흔히 외국을 떠올리는데, 성경적인 선교는 우리가 살고 있는 곳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우리의 땅 끝은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지역이나 족속이나 나라를 의미할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아직 복음을 전해듣지 못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우리 주변도 우리의 땅 끝이 될 수 있다.



말씀 따라 살기

*인도자는 참가자용에 나오는 두 개의 질문들을 다루기 전에 먼저 다음과 같은 식의 질문을 먼저 하라 : “오늘 말씀을 공부하고 나누면서 성령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믿어지는 것이 있다면 나누어 보고, 그 말씀을 한 주간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지 나누어 봅시다.”

1.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삶은 예수님의 삶과 사역의 핵심이었던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고 확장하는 삶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삶을 살기 위해 당신이 지금 시작해야 할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나누어 보고, 한 주간 그것을 실천해 봅시다.**

우리의 힘만으로는 예수님의 증인으로 사는 것, 혹은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사는 것이 불가능하다. 성령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믿는 자들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과 그분이 주시는 능력은 이론이나 교리를 너머 우리에게 실체가 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성령님께 묻지 않고 그분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온 자들은 그러한 삶에 대해 회개하고, 성령님을 가까이 하는 훈련을 해야 할 것이다. 말씀을 읽을 때나 기도할 때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매사에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훈련해야 할 것이다. 한 주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식하면서 그분과 동행하는 훈련을 해보자.

2. **우리 교회는 가장 가까운 곳부터 먼 곳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의 증인이 되도록 부름 받았습시다. 우리에게 가까운 지역에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기 위해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것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리는 가까운 지역사회에서부터 증인이 될 수 있어야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될 수 있다. 우리 교회가 속한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자. 예를 들어, 지금 온 세상에 한국 대중 문화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있다. 주변 타 문화권 이웃을 초청해 김치 만들기와 같은 한국 문화를 소개하는 기회를 가지는 것도 가까운 이웃에게 증인이 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다.